

## 아이들과 함께한 42년 기록... 삶을 가꾸는 글쓰기

### ‘이오덕 일기 1~5’

이오덕 지음

“지금은 4시 5분 전, 아무도 없는 교실에는 때 묻고 찌그러진 조그만 책상들이 60여 개 나란히, 꼭 아이들이 귀엽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뒤편에는 오늘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다. 거기에는 운동장에 뛰노는 아이들의 온갖 모습들이 선과 아름다운 색으로 나타나 있다.” (1962년 9월 21일 일기에서)

평생 우리말을 아꼈던 교육자이자 아동문학가인 이오덕 선생의 일기(1962~2003) 전집이 나왔다.

경북 청송 출신의 이오덕 선생은 19세부터 61세까지 40년이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에 헌신했다.

책에는 산골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1962년부터 세상



를 떠나기 전인 2003년 8월까지 42년간 쓴 일기가 5권으로 나오며 수록돼 있다. 각 권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1962~1977), ‘내 꿈은 저 아이들이다’(1978~1986), ‘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1986~1991), ‘나를 찾아 나는 가야 한다’(1992~1998), ‘나는 땅이 될 것이다’(1999~2003)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

이오덕 선생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다. 또한 평소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네 말로 쓰라”고 강조할 정도로 아이들의 글쓰기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책에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을 비롯, 문익환, 함석헌, 신경림 등과의 인연도 기록돼 있다.

(양철북·1~5권 7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20세기 지도자에서 찾는 21세기 지도자의 조건

### ‘지도자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선량하고 단순한 실용주의자 이미지였던 부시가 갑자기 메가폰을 들고 ‘테러와의 전쟁’을 외치며 극단주의로 탈바꿈한 이유는 무엇일까?

평화와 화해, 법치와 민주주의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만델라의 거대한 존재감 뒤에는 ‘화해의 슬로건에 맞선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그림자도 뒤따른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가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찾는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한 책 ‘지도자들’을 펴냈다. 20세기 세계사를 수놓은 정치지도자들과 그들이 만들어 낸 역사 속에서 21세기 진정한 ‘지도자’의 조건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 집중 조명된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일곱 명이다. 어떤 이는 ‘총체적 실패’ 혹은 리더로서의 ‘자격 미달’ 평가를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공과 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지도자들’은 일곱 명의 지도자들을 롤모델과 반면 교사로 분류해 리더의 일반법칙을 기계적으로 추출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단을 그들이 직면했던 시대적 과제와 정치 지형 속에서 조망하는 역사적 관찰기로 보면 될 것이다.

(역사비평사·1만4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기술만이 능사인가? 디지털 시대 신기술은 양날의 칼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전력을 차단하고, 식량 공급을 위협하고, 거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등 마음대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과학단체와 개인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

과장이 아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주변을 둘러보면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같은 신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블로그들은 언론보다 빨리 뉴스를 전달하고 정치 신인은 단숨에 기성 정치인을 압도한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기술 마니아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IT 미래학자 니코 멜레 하버드케네디스쿨 교수가 펴낸 ‘거대 권력의 종말’은 디지털 시대 권력의 속성을 고찰한 사회 비평서다. 저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 진보가 가져올 ‘기회와 위협의 패러독스’를 풍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급진적 연결

성’(radical connectivity)이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끊임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맹위를 떨치는 기술의 진보가 전통적인 거대 권력을 흔들고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다.

정부, 기업, 군대, 대학 등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거대 권력의 ‘종말’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각 분야에서 신흥 세력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적 사업 구조를 깨뜨린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가 이로온 점만 있는 건 아니다.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저자는 기회이자 위협이라는 양날의 칼을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주는 편의에 빠지는 순간, 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세계관을 수용하게 된다.

가령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 보자. 사람들은 제품을 반영된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을 숭배하고 그의 관점에 길들여진다.

권력은 단순히 첨단기기의 사용법을 안다고

획득되는 않는다. 기술 이면에 숨겨진 의도, 웹사이트에 내재된 사고방식 등을 알아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오늘의 첨단 기술은 디지털 시대 ‘다윗’에 비견된다. 그러나 기술이 새로운 ‘골리앗’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자는 혁신적 기술로 인해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기술도 거대 권력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법치, 자유 시장, 언론, 종교의 가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동을 쉽고 단순화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아가 기술이 문화적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문화평론가 닐 포스트만은 저서 ‘테크노폴리’에서 했던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문화는 기술의 승인을 추구하고, 기술에서 만족을 얻으며, 기술의 지시를 따른다.”

(알에이치코리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백범 정신과 철학... 우리의 행복이념

### ‘영웅 백범’

홍원식 지음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64주기(6월 26일)를 즈음해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 백범’이 나왔다.

국내 최초로 백범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홍원식 씨가 펴낸 이 책은 2004년 ‘소설 백범’에 새로운 사료를 더해 출간됐다.

김구 선생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과의 인터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발굴한 사료들을 근거로 쓰여진 소설은 전편에 걸쳐 역사적 생동감과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피격 현장에서 보인 백범의 결연함은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모두가 통합을 말하면서도 진정한 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 이때에, 백범의 정신과 철학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제3의 이념이자 생활 속 행복이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지식의 숲·1만39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리산서 백두산까지... 평화의 디딤돌

### ‘백두대간의 노래’

양해관 지음

인터넷신문 NYN뉴스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양해관 시인이 첫 시집 ‘백두대간’을 펴냈다.

모두 81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60년 넘도록 지속된 분단을 하루 속히 끝내기 위해 동포애와 국토애로 정신을 발휘하자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한반도의 혼/ 겨레의 넋이 서린/ 백두대간 마무름/ ~ 오늘 그 중간인/ 진부령에 이르렀네”(‘백두대간의 노래’ 중)

표제시 ‘백두대간의 노래’에서 보



듯 시인의 정신은 겨레의 영산 백두산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평화의 날을 기원하는 데 맞닿아 있다.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르는 대동맥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은 이념의 철조망부터 걷어치워야 한다는 결의로 이어진다. 해설을 쓴 신호 평론가는 “문화적 열정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시인의 노래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평한다. (도서출판 명성서림·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눈 쌓인 교정 14살 남학생 죽음, 진실은...

### ‘솔로몬의 위증 1·2’

미야베 미유키 지음

‘화차’ ‘마술은 속삭인다’ ‘응은 잠들다’ ‘모방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미스터리 작품을 발표하며 일본 문단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미스터리 소설계 거장 미야베 미유키가 5년 만에 내놓은 현대미스터리 소설 ‘솔로몬의 위증’이 번역·출간됐다.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아침 도쿄의 서민가에 있는 한 중학교 눈 쌓인 교정에서 2학년 남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된다. 경찰은 자살로 사건을 결론짓지만 곧 고대 불랑학생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고발장이 날아든다. 매스컴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게 된다.

미야베 미유키는 이번 작품에서 현대인이라면 누구



나 사회화를 위해 일정한 거처가 있는 곳인 ‘학교’를 집중 조명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형사, 기자 등 등장 인물들을 통해 학교 안에서 표출되는 고독, 반항, 자책, 질투 등 감정을 섬세하게 그렸다.

소설 속 설정이지만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교거부 등 교육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소설 신초’에 연재된 작품으로 전 3권 분량이다. 1·2권은 지난 26일 나왔으며, 3권은 7월 10일 출간된다. 미야베 미유키는 일본 추리서스 팬스 대상, 일본추리작가협회상,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 야마모토 슈고로 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동네·각 권 1만48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신간

▲도형, 그림의 심리학=삶을 힐링하는 6가지 도형 이야기. 우리가 무의식중에 형성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나 그 형상을 주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6가지 기본 도형, 즉 삼각형, 사각형, 십자, 나선, 원, 만다라로 분류해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분석했다. 융과 심리학자인 저자는 이 6가지 기본 도형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펼쳐보인다. (파피에·1만7000원)

▲자치통감=복숭아의 저명한 역사가 사마광과 그의 조수 유서 등이 방대한 사료에 근거해 1362년간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자치통감’을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원작에 수록돼 있는 3000여건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엄선해 원작의 편성 순서에 근거해 정리했다. 사건과 관련한 흥미로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시그마북스·2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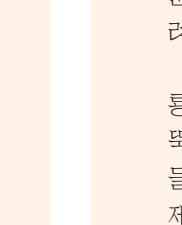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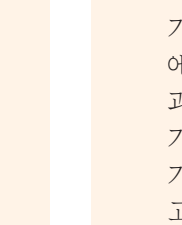
▲좋은 아빠의 자격=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좋은 아빠되기 프로젝트. 저자는 아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천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이와 함께 준비해서 떠나는 여행, 아이와 맨몸으로 노는 법, 함께 가족문화 만들기 등 아빠들이 생활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북리프·1만4000원)



▲사악한 늑대=‘차가운 밤의 강물 위에 인어가 떠오르면 나쁜 늑대가 나타난다. 빨리 뛰지 않으면 늑대한테 잡아먹힌다...’ 미스터리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작품이 나왔다. 독일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시리즈 ‘타우누스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 ‘사악한 늑대’. 저자 빌레 노이하우스는 이번 작품에서 자극적으로만 보이기 쉬운 아동학대를 과감히 작품 소재로 선택했다. (북로드·1만3800원)

▲편애하는 인간=미국 시카고 칼럼비아대학 철학교수인 스티브 아스마가 공정에 대한 집착과 편애에 대한 차가운 시선에 반기를 들었다. 20년간 인간의 마음과 윤리적 딜레마를 연구해온 그는 “인간에게는 편애 본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편애성을 근절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비판한다. 그는 편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와 부처를 언급했다. (생각연구소·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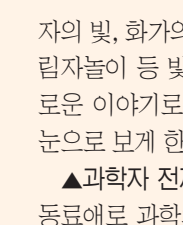
▲애 차별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경제학자이자 비제국론 사회학자인 김윤희 동양대 교수가 세계사적인 체제 위기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추적을 제기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자본주의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현상의 일면이나 어느 한 시각으로만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방대한 이론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 한다. (알리프·1만9500원)



▲몇 호에 사세요?=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한 시선으로 그려낸 단편동화집. 단짝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게되는 정민 ‘피에로’ 역시, 아빠의 실직과 엄마의 가솔로 해체된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성수 ‘킥러빈’ 등 알고보면 누구나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려준다. (뜨인돌어린이·9800원)

▲공공 통=아무 데나 똥을 싸고 다니는 공통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무엇이든 푹푹푹 만든다는 멋진 발명가 스카프는 공통들을 위해 멋진 변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공통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편안하게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 그림책이다. (곰꾸는 꼬리연·1만3000원)

▲지리밭 아이들=숲 속에서 발견한 노란 병을 집어드는 순간 팔과 다리를 잃게 된 아이를 통해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이야기책.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독특 융합과학서, 빛과 놀아오=201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융합인재교육과정에 맞춘 초등 융합과학 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역사 속의 빛, 과학자의 빛, 화가의 빛, 동물과 식물의 빛, 색깔 그림자놀이 등 빛에 대한 경이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어디서나 접하는 빛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 (스콜라·1만1000원)

▲과학자 전재규 남극의 별이 되다=희생과 동료애로 과학의 참 가치를 세계에 알린 지질학자 전재규. 꽃다운 나이에 연구활동도 아닌, 구조활동을 벌이다 간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남극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극지 과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남극의 별이 되어 세균까지 지키고 있을 과학자 전재규의 이야기를 동화로 엮었다. (침어미디어·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